



이달

한

보름

# “사사로운 감정이 양록업 발목 잡는다”

— 본회 임원·지회장 연석회의 특강시 전병태 교수 일침 —

“업계 발전의 근간은 구성원의 참여와 화합이라는 점에서 사사로운 감정쯤은 접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전병태 교수는 지난 9월 24일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본회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 앞서 1시간여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록인간 화합과 참여를 주문했다.

전교수는 “현재 협회를 불신하는 사람은 협회의 업무 수행능력보다는 협회 구성원 중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본인과 뜻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인 감정으로 인한 불신과 이로인한 집안싸움은 양록업계 발전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교수는 국내 양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 과학적 사양관리 ▲ 국산녹용 홍보강화 ▲ 전업화 ▲ 수입 및 밀수 녹용 저지 ▲ 국산녹용 우수성 규명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양록협회로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협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록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직

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회원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하고 “협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양록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병태 교수는 현재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학교내에 설립한 ‘한국녹용연구센터’ 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교수는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록인의 전문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슴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수 특강 후에는 약 3시간에 걸쳐 2003년도 임원·지회장 연석회의가 실시됐다.

전국 60여명의 임원, 지회장,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회의에서는 ▲ 신규지회 결성 및 회원 배가 운동 전개 ▲ 수입녹용 불법유통 단속활동 강화 ▲ 양록자조금제도 ▲ 대정부 및 대외활동 강화 ▲ 품질보증 및 원산지표시 사업 등의 안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내용 본문 참조) **한국양록**